

# 한국건설 회생결정 됐지만...아파트 신축 현장 '후폭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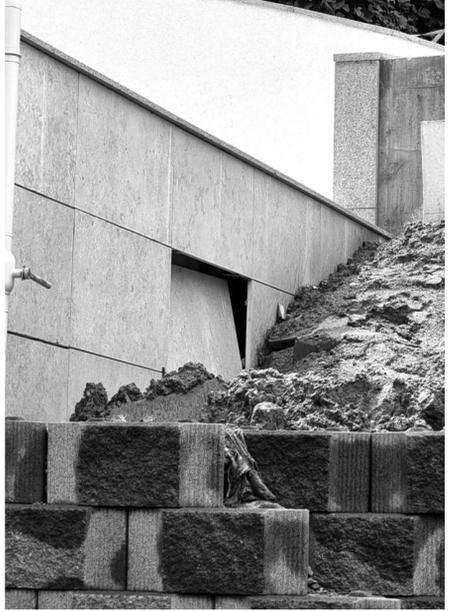
입주 예정자들 "외벽 파손·주차장 누수 등 공동시공사 부실 시공" 지적  
철저한 안전진단 후 준공 승인 촉구...공동시공사 "문제없이 시공할 것"  
광주 4곳 HUG 보증사고 사업장 지정...유찰 반복에 사업 재개 불투명

광주시 서구의 한 신축 아파트에서 고층 외벽이 떨어져 나가는 등 부실 시공이 의심되는 하자가 발생해 주민들이 정밀 조사와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법인회생 결정을 받은 한국건설이 시공했으며, 공동 시공사가 잔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주민들은 건설사의 '유동성 자금 위기' 여파가 자신들에게 전가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25일 광주시 서구의 A 신축아파트 입주예정자들에게 따르면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서구에 철저한 하자점검과 안전 진단 후 아파트 준공 승인을 내 줄 것을 촉구했다. A 아파트는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의 건물 2개 동으로 구성됐으며 총 14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다. 주민들은 A 아파트는 고층부 외벽 타일이 군데군데 떨어져나와 구멍처럼 뚫렸으며, 저층부 상가에는 대리석이 파손된 흔적도 곳곳에서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시공사 측에서는 떨어져 나간 외벽에 페널을 채워넣는 등의 조치를 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은 "페널이 떨어져나간 지점에서 '꽃음속' 등 기계적 고정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접착제로 고정된 정황이 확인돼 사고 재발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달 초 A아파트 저층부 외벽 석재 페널은 최근 폭우로 밀려온 토사 무게를 못 이기고 건물 내부 쪽으로 밀려들어가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지하주차장에는 누수로 천장에 곰팡이가 피었으며 주차장 벽면에 20여cm 흙탕물이 차올랐던 흔적

이 남기도 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지하 발전실 바닥에 물이 고이면서 감전 위험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입주예정자들은 기존 시공사인 한국건설이 법인회생신청을 낸 뒤, 공동 시공사였던 B 회사가 잔여 공사를 맡으면서 문제가 악화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B사는 입주시기를 두고도 주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B사는 지난달 8일 관할구청인 광주시 서구에 사용승인(준공)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입주자 사전 점검일을 지난달 13-14일로 예고했다. 하지만 뚜렷한 이유를 고지하지 않고 점검일을 20-21일, 27-28일로 잇따라 미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입주예정자들은 공정률이 부족한데도 사용승인 신청을 하고 입주 절차를 강행하다 보니 문제가 불거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내놓고 있다. 광주시 서구는 "해당 아파트는 주상복합 300세대 미만으로서 주택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행법상 입주자 사전 방문 일정을 사전 통보해야 하거나 관할구청에 공정률을 제출하는 등의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석재가 지속적으로 떨어져 주변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은 안전에 큰 위험을 끼치는 중대한 하자다"며 "광주시 서구가 이같은 하자가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 승인을 내 주는 것은 말도 안된다. 하자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광주시 서구의 한 신축아파트 고층부 외벽 석재 타일이 떨어져 나와 군데군데 구멍(점선 안)이 뚫려 있다. 현재 시공사는 떨어져나간 타일을 보수 조치한 상태다.



이달 초 같은 아파트 저층부 외벽에 폭우로 인해 토사가 흘러 내리고 석재 외벽이 무너져 있다. (독자 제공)

B회사 관계자는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 사항에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회사 측에서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며 "하자는 어느 아파트를 지더라도 생기게 마련이며, 보완을 거쳐 문제 없게 시공할 방침이다"고 해명했다. 광주시의 다른 한국건설 사업장 또한 문제를 겪고 있다. 한국건설은 지난해부터 유동성 위기에 허덕이다 280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갚지 못하는 상

황에 맞닥뜨려 지난 6월 29일 법원회생을 신청했다. 광주에서는 북구 신안동, 동구 공동·수기동·산수동 등 4곳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임대 보증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됐다. 공동의 경우 지난해 말 기준 계획 공정률은 42.3%, 실제 공정률은 37.4%로 예정 공정률이 한참 모자란 상태로 사업이 멈춰섰다. 신안동의 경우에도 계획공정률은 87.2%, 실제 공정률은 61.5%

로 역시 보증사고 처리되는 등 다른 사업장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이들 사업장은 모두 분양사고 사업장으로 지정된 데 따라 입주예정자들에게 분양금 등을 환급해 주는 절차를 밟고 있다. 현재 공동·산수동·수기동 사업장은 HUG 공매를 통해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있으나 유찰을 반복하고 있어 사업 재개 시기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광주지법, 남양건설 법인회생 개시 결정

12월19일까지 회생계획서 제출

법원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남양건설의 법인회생 신청을 인가했다. 광주지법 파산 1-1부(부장판사 조영범)는 지난 23일 남양건설의 회생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남양건설의 현 상황에서 변제기가 도

래하면 채무를 변제할 수 없어 파산 우려가 있다"면서 "남양건설이 낸 자료 등을 살펴본 결과 법인회생 기각 사유가 없어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공동관리인을 선임하고, 9월 20일까지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와 주주 목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10월 18일까지 회생채권, 회생담보권과 주식을 신고하고, 이후 11월 19일까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갖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남양건설은 12월 19일까지 회생계획안을 광주지법 회생파산실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남양건설은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 대금 미정산, 미분양 등에 따른 유동성 위기로 1000억 원대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법인회생신청을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또...해남서 발일하던 80대 할머니 온열질환 추정 사망

해남에서 발일 후 귀가하던 80대가 숨졌다. 25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께 해남군 마산면의 한 농로에서 A(여·88)씨가 쓰러져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119 소방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이날 홀로 녹두밭에서 일을

하고 귀가하다 쓰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발견 당시 체온이 상당히 높았으며, 검시 결과 열사병 증상인 호흡중추마비를 보인 점을 토대로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 치과병원서 폭발물 터트린 70대 구속

치과 치료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폭발물을 직접 만들어 치과에서 터트린 70대가 구속됐다. 광주서부경찰은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검거된 A(78)씨를 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시 10분께 만취해 광주시 서구의 한 치과병원에 폭발물을 가져다 놓고 폭발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최근 이 치과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병원측이 공감을 해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10일여 전 이 병원에서 치아에 크라운(보철물)을 씌우는 치료를 받았으나, 염증이 도지는 등 불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이에 병원 측은 A씨에게 환불 또는 재치료(지난 21일)를 권유했고, A씨는 재치료를 선택하고도 예약당일 병원을 찾지 않고 범행에 필요한 인화물질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24일 발부받아 구제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아파트 추가분양 기회 제공 조건, 환경정비사업 인가는 위법

광주시 북구가 토지소유주 등 현금 청산 대상자들에게 대해 아파트 추가 분양신청 기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인가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광주고법 행정1부(재판장 양영희)는 누문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조합)이 광주시북구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 명령 취소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1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 광주시 북구 누문동 일원에 지하 3층·지상 46층 13개동 3096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를 짓는 사업인

누문동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2006년 시작했다. 북구는 보상금 문제 등으로 조합과 일부 주민들 간 갈등이 계속되다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거부했다. 조합이 북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북구가 기존 토지 등 소유자(현금청산 대상자)에 대한 '아파트 추가 분양 신청 기회 제공'을 인가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행을 재촉해 소송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북구의 이행 명령은 도시정비법 규정의 조치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적법한 조치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해를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일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이율 2023년 6월 기준)

**햇살론**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기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 을 로 지 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점)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 동 센 트 럽 지 점 062)361-4472~4	유택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 아 지 동 차 지 점 062)385-4977~8	애 나 로 마 트 동 립 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